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예레미야 33:3

김요셉 목사님

서론

뭔가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시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는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점쟁이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1)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착각 속에 살아간다.

- ① 창세기 3:1-6, 아담의 착각이다. 하나님 떠나도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
- ② 창세기 37:5-11, 요셉이 꿈을 꿔다. 세계복음화하는 꿈을 꿔다. 그런데 형들은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야 하느냐' 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언어먹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
- ③ 출애굽기 14:10-12,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왔다.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다.
- ④ 사무엘상 3:1, 엘리 제사장과 아들이 언약을 놓쳤다.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재앙 만난 시대가 되어 버렸다.
- ⑤ 사무엘상 11:15,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 ⑥ 열왕기상 19:13-21,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다.
- ⑦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착각이다.

사단은 이 착각을 가지고 종교화시켰다. 하나님 없이 뭔가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다. 종교 가지면 되는 줄로 착각한다. 율법 화시켰다. 자꾸 율법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행위화시킨다. 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는 것이 착각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단의 완전 전략이다. 이것을 구원인 줄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2) 기도의 원리가 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 ① 감사다. 구원에 대한 감사만큼 의미있는 것이 없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다. 이게 안 믿어지면 감사헌금이 안 나올 것이다. 우리는 매일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 ② 말씀, 강단 말씀의 흐름이다. 한 주간동안 계속 고백하면서 나와야 한다.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 그것을 사건, 문제, 환경에 계속 적용시켜야 한다. 기도할 때 이게 나와야 한다.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이 나와야 한다.
- ③ 영적인 집중을 할 때, 거기에서 반드시 힘이 생긴다. 여기에서 몸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 ④ 말씀이 답이 되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 ⑤ 말씀이 성취되니까 균형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볼 뿐이다.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다.

1. 기도에 대한 약속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

- (1) 무슨 약속인가? 기도에 대한 약속이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다. (마21:21-22)
- (2) 눅11:13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다.
- (3) 눅18:7-8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했다.

(4) 요14:13-1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5) 요15:7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받으리라고 했다.

(6) 요15:16 누구 이름인가? 예수 이름이다. 그리스도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착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2.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1)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2) 행1:12-14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으록 오로지 기도했다. 행2:1-47 약속된 성령충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3) 기도하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역사한다.

(4)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다른 것을 더 채워야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무너진다. 빌4:6-7,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다. 마12:28-29,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3.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목을 잘 정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받아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서울대 가는 게 기도제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목상하다가 가야 하는 것이다.

(2) 시간을 정해라. 왜 시간을 정해야 하는가? 중심을 말하는 것이다. 내 현장, 환경, 만남 속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3) 장소를 정해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내 것이 없다. 가정도 산업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4)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그래야 원니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칼빈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했다. 정말 기도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응답

(1)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진짜 응답은 구원이어야 한다. 최고의 은혜가 구원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나는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최고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진짜 응답은 구원받은 응답이다.

(2)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다. JYP가 동네로 온다. 사인받기 전에 전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게 계속 생각나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3) 제자다. 오바다같은, 엘리사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8:31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열쇠가 다락방이다. 내게 다락방이 있는가, 현장에 제자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제자, 내가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할 현장, 나의 로마가 늘 생각나야 한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다. 더 받을 것이 없다. 기도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미션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가는 다락방,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복음 전하는 제자가 없는지 보라. 없으면 빨리 교역자에게 불러라. 갈 데는 너무 많다. 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기도응답을 누리고, 이 기도의 다섯 가지 응답을 누려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한다.